

석정리·石亭里

석정리·石亭里

석정리는 염티읍의 한 마을로 돌모루와 옥정이의 두 부락으로 크게 나뉜다. 이 마을엔 김 씨와 이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총 316가구가 사는데 그 중 1구인 돌모루엔 21.8% 69가구만이 있다. 또한 1구는 7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2구는 80%가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석정리 마을은 본래 아산군 근남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석중리, 석동리와 온양군 이북면의 소정리 일부를 병합하여 석동과 석정의 이름을 따서 석정리라 하여 아산군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석정리 위치도>



☒ 돌모루, 옥정이 마을 (석정리)

석정1리는 돌모루 마을이며, 돌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어진 지명이다.

석정2리는 옥정이 마을과 소정리 마을로 이루어 졌으며, 옥정리 마을은 소정이라는 작은 부락의 동서쪽에 있는 마을로 일명 뽕나무 거리라 불리워 졌으며, 소정리 마을은 충무교의 서쪽 방향에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현충사의 반대방향이다.

<조사당시 석정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치

돌모루 마을은 위도 36-48-30, 경도 126-59-50인 지역으로 읍 소재지에서 39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312번 도로와 맞닿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며, 거리로는 2.5km 정도가 된다.

옥정마을은 위도 36-47-50, 경도 126-59-50인 지역에 위치하며, 옥정마을은 돌모루에서 앞으로 400m 논길 사이로 걸어가면 소정마을이 나온다. 이 소정마을에서부터 2구의 시작이고, 동서쪽으로 계속 마을이며 끝지점에 옥정마을이라는 작은 부락이 있다. 읍소재지에서 39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311도로와 맞닿는 지점이다.

2) 현황

돌모루의 인구는 남자 140명, 여자 128명으로 총 268명이 살고 있다. 총 69가구가 살고 있는데 마을 주민의 79%가 농업에 종사하며, 나머지 21%는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옥정마을의 인구는 총 1,073명으로 돌모루 마을보다 마을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인구는 몇 배가 많으며, 남자 541명, 여자 532명의 분포를 보인다. 247호의 많은 가구가 있는데 그중 19%만이 농사를 짓고 80%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 인구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돌모루 마을	268명	140명	128명
옥정마을	1,073명	541명	532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서비스업
돌모루 마을	100%	79%	.	21%
옥정마을	100%	19%	1%	80%

돌모루 마을의 농경지는 논 68.5ha, 밭 12ha이며, 농기계는 경운기가 가장 많고, 각종 농기계를 있고,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을 뿐이다.

옥정마을의 농경지는 논 63.2ha, 밭 21ha이며 농기계는 이 마을 역시 경운기가 가장 많고,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돌모루 마을	80.7ha	68.5ha	12ha
옥정마을	84.2ha	63.2ha	21ha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시설
돌모루 마을	1개소	1개소	-
옥정마을	1개소	1개소	-

돌모루 마을은 심씨가 22%로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연령층은 40~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옥정마을에는 성씨별 현황을 보면 김씨가 12%로 가장 많고, 연령층은 젊은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인구가 다른 마을보다 훨씬 많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김씨	심씨	신씨	양씨	박씨	이씨	기타성씨
돌모루 마을	69호	1호	15호	10호	6호	-	1호	36호
옥정마을	247호	30호	3호	5호	2호	10호	27호	170호

- 최고령자

돌모루 마을의 최고령자는 심 재익 (90세)씨, 옥정마을의 최고령자는 김정인(99)씨이다.

3) 자연경관

돌모루 마을 앞에는 너른들이 펼쳐있고, 마을 한쪽엔 크기가 매우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다. 도로를 따라 집이 모여 있고, 도로 건너편에는 바로 작은 냇가 지난다. 이 마을은 염티읍의 남쪽 끝에 위치한 마을이다.

옥정마을은 동쪽을 뺀 나머지 세 면이 도로로 막혀 있다. 도로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 있으며, 왼쪽과 밑의 도로 모퉁이에 모여 있다. 도로 바깥쪽에 있는 집들 밑으로는 약간 큰 냇가 흐르고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돌모루 마을과 옥정이 마을은 아산군 근남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석중리, 석동리와 온양군 이북면의 소정리 일부를 병합하여 석동과 석정의 이름을 따서 석정리라 하여 아산군 염티읍에 편입된 후 나뉜 1구, 2구에 속하게 되었다.

5) 입 향

돌모루 마을은 청송 심씨가 마을에 처음 터를 잡고 살았으며 현재 그 자손이 13대째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마을의 형성년대는 서기 1600년경 약 400년 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옥정이 마을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김씨로 지금까지 5대를 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형성년대는 서기 1800년 약 200년경으로 추측이 가능하나 이곳은 교통이 발달되어 상가가 많기 때문에 이동인구가 많아 토박이가 없어 형성년대를 확실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6) 지 명

十 돌모루 마을의 지명

·돌모루 : 석정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동쪽과 서쪽에 바위가 많이 있음.

·석정들 : 돌모루 앞에 펼쳐 너른 들.

·아래못 : 옥정이 북동쪽에 있는 못. 송곡리에 있는 장자못의 아래쪽이 됨.

·가마못 : 아래못 동쪽에 있던 못으로 경지 정리 할 때 매웠음.

十 옥정이 마을의 지명

·소정이 : 충무교 서쪽 뚝 아래에 있는 마을. 전에 소나무가 많이 있음.

·충무교 : 석정리에서 온양시로 가는 다리로 곡교천에 놓았는데 이순신장군의 현충사 참배를 위하여 1964년 4월에 준공된 것으로 길이가 76cm이다. 그러다가 90년도에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교통체증이 조금은 완되었음.

·옥정교 : 옥정이 앞에 있는 다리로 실옥동으로 통하는 다리

·옥정이 : 소정이 동서쪽에 있는 마을로 맑은 물이 흐른다하여 옥정이 마을이라하며, 일명 뽕나무 거리라고도 칭하였음.

7) 전 설

十 옥정교 다리의 전설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을 시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해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그곳 웅덩이에서 동네 꼬마 아이들이 물에 빠져 1년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몇 년전에도 그런일이 발생하였는데 죽은 아이의 친구 말에 의하면 꼬마가 물위에 하얀새가 있다며 그 새를 잡으러 깊은 물에 뛰어 들었다는 것이다. 죽은 아이 친구도 그 하얀새가 물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옛날에 비가 많이 오는 어느날, 여인이 자기 아이와 함께 죽었는데 필시 그 여인이 한이 되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전해진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돌모루 마을은 예전에 줄다리를 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편을 가르고, 남자가 이겼을 경우에는 쌀농사가, 여자가 이겼을 경우에는 보리농사가 잘 된다고 믿으며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다 한다.

옥정이 마을은 정월에 윷놀이를 하고 있지만, 15년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로 편을 나누어 줄다리기를 시합을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다. 마을에는 1년에 한번씩 동계를 하는데 이때 애경사가 난 집은 현금으로 도와주고 남은 잔금을 결산하는 계이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10) 종교단체

돌모루 마을의 종교단체로는 성산감리교회가 있고 신도수는 50여명에 이르고, 옥정이 마을의 종교단체에는 뽕엘감리교회가 있으며 성도수는 67명이다.

11) 공장현황

돌모루 마을에는 공장이 없으며, 옥정이 마을에 밀집되어 있는데 금속, 전자, 제과, 맥주 등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4개 업체가 있다.

力우진금속 - 석정 31-8, 사농차웰캡, 종업원수 9명

力동은전자 - 석정 31, 콘덴서조립, 종업원수 20명

力동양제과 - 석정 79-4. 제과물 도매, 종업원수 17명

力조선맥주 - 석정 79-11, 음료도매, 종업원수 20명

12) 마을의 특성

돌모루 마을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수령은 270년이다. 수고 18m에 나무둘레 4.4m이고, 1980년대에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농업을 주로 하며, 벼농사를 가장 많이 짓고 있으며, 마을은 넓은 들이 있는 마을로 마을에 들어서면 시원한 느낌과 가슴이 후련해 지는 느낌이 든다..

옥정이 마을은 호수가 많아 매우 넓게 집들이 흩어져 있으며, 마을의 애경사시 대부분 가까운 위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돕고 있으며, 마을이 커서 모두가 왕래하며 돕는다는 것은 무리이기도 하다.